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북한 포사격 경제적 영향 제한적

-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23일 북한 포사격 도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향후 사태전개에 따른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함.
- 도발 소식이 11월 23일 장종료 시점에 보도됨에 따라 장중 영향은 크지 않았으나 이후 선물 시장 등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져 불안요인은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함.
 - 발생 직후 한국물 CDS 프리미엄·역외 달러환율이 크게 올랐으나 시간이 흐르면 서 추가상승은 없었고, 아시아 주가는 중국 긴축우려와 북한 발포 소식 등으로 낙 폭을 확대해 2% 내외 급락했으며, 미국과 유럽증시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25일 북한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빠르게 회복하며 사흘 만에 상승 마감 했으며, 원/달러 환율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고 미국과 유럽증시도 상승함.
- 경제적 영향은 향후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과거 유사사례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함.
 - 우리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경 제의 흡수능력은 충분하며, 국내 전문가 및 신용평가기관들도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.
- 이번 사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,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.
 - 금융·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, 과도한 불안심리로 인해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고, 서민생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생필품 가격·수급 동향을 점검하여 필요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함.
 - 대외교역과 원자재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식경제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, 무역협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입, 바이어·투자자 동향을 점검할 예정임.
 - 기획재정부는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북한도발 관련 정세와 한국경제의 안정적 운영 현황을 신속, 정확하게 홍보하여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임.
 -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각 기관이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도록 조치함.

(북한 포사격 도발 관련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결과, 기재부, 11/24)